



하는 唐津郡 貞美面 壽堂里 安國寺址에서出土된 金銅如來立像이다.

安國寺址는 古餘美縣 治址(貞美面 餘美里) 北方 約一km 쯤 되는 곳 安國山 南쪽 기슭에 在

리잡았으니 筆者는 既往에 現地를 踏査한 바 있어 이 寺址에서 國寶로 指定된 石佛立像 三軀와 石塔(註) 一基를 보았다. 此寺의 創建은 未詳하나 이 石佛과 石塔은 高麗 遺物이며 그리고 麗代에 全盛하던 伽藍址로 推測된다. 前記 任氏는 浮石寺 住持가 되기 前에 이 安國寺址에서 居住하였는데 그때 偶然히 金銅如來立像을 發見하였던 것이다.

이 佛像은 臺座上에 直立 正面한 鍍金小像인데 오랫동안 金色이 脫落되고 線條가 磨滅되어 元來의 아름다운 彫法을 볼 수 없게 되었다. 頭部는 螺髮이고 肉髻는若干 높으며 머리를 숙였다. 顔容은 磨滅로 分間하기 어렵고 가름한 顔郭만을 짐작할 수 있다. 手形은 通印을 하였고 通肩法衣의 衣紋은 兩袖의 垂下線안으로 가늘고 溫柔한 圓弧狀의 橫段線이 가슴에서 부터 무릎 밑까지 連續하였다. 足部는 分明치 못하고 衣褶下 臺座에 連한 部分에 線刻으로 表示되었다.

臺座는 佛身部와 다 붙었는데 六角座臺의 形式을 取하였다. 臺座에는 흔히 蓮花紋 等의 彫刻을 하는 것이 常例로 되어 있으나 아무런 彫刻이 없이 上臺에 긴 六角形 모듬의 簡易한 線刻이 있을 뿐이며 中腹部도 未分明하고 上臺는 圓形으로 되었으며 臺底는 우묵 과져 座置에 安定感을 준다. 이 佛像의 手法이 整齊되고 卓越한 作品은 아니나 그 樣式과 技法으로 보아 高麗期의 所作으로 推定된다.

總高 七·四cm 佛身部 五·八cm

臺座高一·六m 臺座底二·八cm × 一·四cm

(註) 寶物一〇一號인데 元來 五層石塔으로 推定되며 第一層屋身에는 正面間에 門扉를, 其他三面間에 佛像을 彫刻하였음이 特異한(總高二·八五m)

持國天王 石室

文 明 大

옛기록에 石室이라는 말이 종종 보인다. 물론 石室墳墓를 가르키는 때 도 있지만 대개는 石窟寺院을 뜻하기 마련이다. 말하자면 石室은 돌로 방을 만들고 거기에 禮拜像을 모시거나 승려가 修道하는 방이라는 말이다. 우리나라에는 일찍부터 石窟寺院을 造營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石窟院을 만들어 왔는데 이런 造營活動이 羅末鮮初까지 왕성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遺構나 記錄으로 보아 명백하다. 李朝後期에는 거의 감퇴되어 遺構를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옛 遺風이 傳해 내려온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이것을 짐작케 하는 예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小石室이다.

작은 입석(高二〇·三cm 幅一一·七cm)을 方形으로 다듬고 下端은 턱을 나오게 하여 臺를 표시하고 上部는 龕(高一一·三cm 幅七·三cm 深六cm)을 만들었다. 龕室은 아취형을 이루었는데 內部는 조잡하게 窄아刀痕이 남아 있다. 銘文으로 보아 이 龕室에는 持國天王像을 모셨을 것이지만 지금은 없어졌다. 背面을 제외하고 全面에 朱칠이 덮였고 龕室의 左右와 左右側面에 墨線을 그었다. 向右側面 墨線內에는 銘文이 陰刻되어 있지만 다른 墨線內에는 銘文이 없는데 원래는 記入되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背面에도 向右側面과 거의 같은 銘文이 새겨져 있다.

(向右側面 銘)

康熙五十年辛卯

六月日坦明比丘造

成石室獻于東方持旺天王前

〔背面銘〕

康熙五十年辛卯六月日坦明比丘造成石室

奉獻天王 (字徑 二×一·五 cm)

康熙五十年 即一七一一年 (肅宗 三十七年)에 坦明比丘가 石室을 造成하여 天王을 모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向右銘에 이 石室을 持旺天王前에 봉헌했다 라는 記錄으로 보아 봉헌된 天王은 持國天王인 것이 분명하다.

銘文에 명백히 보이다시피 이 적은 小龕을 石室로 표현한 것은 좀 어색한 감이 들지만 石窟寺院의 작은 모조라 생각한다면 이상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아취형의 문이라든가 石室 거기에 像을 모시고 禮拜하는 것 등은 완전히 石窟의 아이디어인 셈이다.

이러한 小龕室 형태를 李朝時의 것으로 한 두 예를 알고 있는데 石窟造營의 遺風을 본받은 仁宗의 退化형식인지 또는 옛부터의 독립된 石窟로 조아되어 인지는 불명확하지만 李朝後期에 까지 하여튼 石窟造營의 遺風이 계속되었던 것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註〕 安城 七長寺 住持 金義正씨가 七長寺 法堂 뒷편을 파다가 수습한 것인데 함께出土된 臺가 있으나 이 石室에는 맞지 않는다.

考古美術 卍—△

◎ 文化財委 第一分委 十五次會議 (書面決議)

決議內容

一、文財局과 國博에서 申請한 史蹟 第七號望德寺址 發掘은 寺址 土地의 國有

化하기까지 保留

一、文財局에서 申請한 神文王陵 東便 建物址、芬皇寺 東南便 模塊塔址 發掘可
一、臨海殿址 現狀變更은 次期會議에서 設計圖 檢討할 것

◎ 文化財委 第一分委 第十六次會議

一六八、九、一四、文財局 會議室에서 開催, 李弘植, 金元龍, 趙明基, 鄭寅國, 裴吉基, 五委員出席, 文公部次官, 文財局長, 文化局長, 文化課長, 管理課長 管財係長, 文化財係長 參席

一、大漢門을 서울市 原案대로 後退시키고 現位置에는 大韓門址의 標石을 埋沒할 것

一、佛國寺 極樂殿內 金銅佛 二軀의 改金에 崔淳雨 秦弘燮 兩委員을 派遣할 것

一、睿宗 胎室 移轉 全北大 博物館에 移轉 保存할 것
一、별지을 瓦片박물관에의 文化財 搬出 可

◎ 慶州에서 塔址發掘

文化財管理局에서는 芬皇寺 東南方의 石堆 가운데 仁王像 四軀가 있어 芬皇寺 石塔과 類似한 模塊石塔址가 있었으리라고 推定되어 온 塔址를 지난 九月 一日 부터 發掘에着手 基壇 下部와 積心狀態를 調査하였다.

이 作業途中 舍利孔으로 보이는 方形孔이 있는 石材、 이와 別途의 石塔材(基壇 甲石、屋身、屋蓋石等) 數點과 埋沒되어 있던 仁王像 一軀를 發見하였다.

한편 稀貴한 蓮花文 心礎石이 알려진 普門寺 西塔址에서 同心礎石 鎊을 調査하였던 바 別途 臺石이 높이고 그 上面에 方形 舍利孔이 있음을 確認하였으나 이 方形孔 안에 장치하였던 圓形으로 推測되는 舍利函은 이미 盜取되었다고 한다. 이 一連의 作業은 同人 秦弘燮 教授의 指導 아래 이루어졌다.

◎ 法住寺 捌相殿에서 舍利發見

法住寺 捌相殿의 解體 作業이 進行되는 中 지난 九月 二十五日 心柱 밑 心礎 上面 方形 舍利孔에서 四壁과 蓋로 덮였던 在銘 銅板을 비롯한 舍利藏置가 發見